광주시, 삼성전자 생산물량 해외 재배치 대응 기구 가동

가전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단 구성 본격 활동 돌입

협력업체·신산업전환 지원반 회의…현장 목소리 반영

광주시가 삼성전자 광주공장 사업장의 생산물량 해외(멕시코) 재배치〈광주일보 10월 16일자 9면〉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가전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가전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단'은 지난 24일 시청에서 이상갑 문화경제부시장을 단장으로 가전산업 협력업체 지원반과 신산업 전환 지원반을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지원단에는 광주시 관련 부서, 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광주지역본부, 광주테크노파크, 산학연협의회 등 관련 기관들이 참여했다.

광주시는 이날 첫 회의에 앞서 지역기업의 의견을 청취했으며, 관련 기업들은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삼성전자의 물량 재배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완성품 생산 등을 통한 지역업체의 독립성과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협력업체들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응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지원단은 현재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협력업체 60여개 사를 대상으로 물량 재배치가 시장에 미치는 상황 분석, 협력업체 영향 및 대응 상황, 광주시 및 기업지원기관의 지원방안 등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최근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이 냉장고 모델 생산물량을 멕시코 공장으로 이전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 사회에서 협력업체 악영향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일단 프리미엄 가전 라인 재배치 등에 따라 광주 사업장 전체 생산 규모에는 변동이 없다면서도, 관련 업계의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광주시와 삼성전자는 현재 협력업체 상생 강화를 위한 삼성형 스마트공장 보급 사업과 협력업체 지원 펀드 활용 등을 협의하고 있으며, 지역 가전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마트가전 신사업 기회 발굴, 커넥티드 리빙 분야 사업 진출 강화 지원 사업도 준비 중이다.

손두영 광주시 미래산업총괄관은 "가전산업은 자동차산업에 이어 제조업 비중이 두 번째로 높은 광주 대표 산업"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면밀히 검토해 광주 제조업과 뿌리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삼성전자 등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 21일 자신의 SNS(페이스북)를 통해 "현재 삼성은 프리미엄 가전 전략에 따라 물량 재배치를 추진하면서 경쟁력이 없는 구모델은 현지생산으로, 프리미엄·신모델은 광주 생산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구모델 일부가 현지생산으로 전환될 예정이지만, 광주공장 시설과 생산 캐파에는 변동이 없다"고 주장했다.

강 시장은 특히 "오히려 올 연말 라인 최신화 작업을 준비한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광주 삼성공장이 커지고, 광주 제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삼성과 협력사, 광주시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가을산행 맞이 아웃도어 할인 광주신세계 노스페이스 직원이 쌀쌀해진 가을 날씨를 맞아 패딩을 선보이고 있다. 광주신세계는 가을산행을 나서는 고객들을 위해 최대 60%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아웃도어 가을산행 특집 할인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본관 지하 1층 이벤트홀에서 오는 28일부터 11월 3일까지 진행되며, 노스페이스, 디스커버리, 블랙야크, K2, 아이더, 네파, 내셔널지오그래픽, 컬럼비아 등 아웃도어 의류로 유명한 9개 인기 브랜드가 참여한다. 〈광주신세계 제공〉

최신 광기술·제품 한눈에…국제광융합산업전시회 개최

29~30일 DJ센터…59개 업체 122개 부스 운영

광의료바이오·광통신·광조명·광정밀 등 광융합 8대 분야의 최신 기술과 제품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제22회 국제광융합산업전시회가 29일부터 이틀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광주시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광융합산업진흥회가 주관해 개최하는 이번 전시회에는 59개 업체가 운영하는 122개 부스로 구성된다. 옵토닉스, 오이솔루션, 한국알프스 등 광주지역 기업 32곳과 기관 16곳도 참여할 예정이다. 8개 국가의 해외바이어 30명도 찾아 직접 기업들과 수출도 협의한다.

특히 옵토닉스는 유전체 다중박막 회전격자, 보행분석시스템(탱고), 오이솔루션은 100G 코히어런트 광 트랜시버, 한국알프스는 가상 인터페이스(Stealth Aerial Interface), 옵티컬 렌즈(Optical Lens), 엔에이치네트웍스는 지능형 영상분석 CCTV 등 최신 기술로 만든 제품들을 선보일 예정이어서 관심을 끌 전망이다.

개막식 이후에는 광융합산업 기술사업화 아이디어 및 제품디자인 공모전,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광융합 기술 컨퍼런스 등 다양한 행사들이 이어진다.

지난 2001년 제1회 '국제광산업전시회'를 기점으로 22년간 개최되고 있는 국내 유일 광융합산업 전문전시회는 세계 광융합 관련 유망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 개최를 통해 국내 광융합 관련 기업들의 해외 진출에 있어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다. 또 광소자부품이 타 산업과 융합됨으로써 광의료바이오, 광에너지, 미래 모빌리티, 스마트 조명 등 미래 성장 동력 산업의 핵심이라는 광기술의 중요성을 소개하고 홍보하는 장이 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한국필립모리스, 테리아 블랙 루비 출시

아이코스 일루마 전용

한국필립모리스가 지난 24일 궐련형 전자담배 기기 아이코스 일루마 시리즈 전용 타바코 스틱인 '테리아'의 신제품 '테리아 블랙 루비〈사진〉'를 출시했다.

테리아 블랙 루비는 시원함과 화려함으로 첫 모금부터 끝까지 색다른 맛을 선사하는 것이 특징이다. 더불어 태우지 않고 가열하는 아이코스 일루마 방식과 결합해 연초 맛을 연기와 냄새 없이 즐길 수 있다.

테리아 블랙 루비는 광주 직영점을 비롯한, 전국 아이코스 공식 매장에서 기존 테리아 제품과 동일한 가격에 구매 가능하다.

이로써 테리아의 스페셜 블렌드 라인업은 ▲블랙 옐로우 ▲블랙 퍼플 ▲썬 펄 ▲썸머 웨이브 ▲오아시스 펄 ▲유젠 ▲퍼플 웨이브 그리고 ▲블랙 루비까지 포함해 8종으로 확대된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광주형 OTT 스토리집 소재 개발 워크숍

전문가와 1:1 피드백 등 제공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GICON)은 지난 18일과 24일 서울 LW컨벤션센터와 광주지방법원에서 '2024 스토리집 간담회'와 '2024 스토리집 소재 개발 워크숍'을 개최했다. 〈사진〉

이번 행사는 OTT 영화 및 드라마 각본 등을 개발하고 있는 작가들이 콘텐츠 산업 전문가들과 직접 소통하고, 작품의 완성도 및 상업적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스토리 창작자들에게 각 분야 전문가들의 피드백과 새로운 소재를 발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특히 지난 18일 개최된 스토리집 간담회에서는 스토리집에 선정된 작가들이 영화 및 드라마 분야 전문가들과 1:1로 만나 심층적인 피드백을 주고받았다.

영화 전문가로는 '극한직업'의 김성환 어바웃필름 대표, '추격자'의 김수진 영화사 비단길 대표가, 드라마 전문가로는 '반짝이는 워터멜론'의 손정현 본팩토리 감독, 넷플릭스 작품 '마이네임'의 장지윤 PD 등이 참석했다.

이경주 GICON 원장은 "스토리집 선정 작가들을 위한 교육과 간담회 등을 통해 지역 창작자들의 소재 발굴 및 작품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OTT 콘텐츠 창작자들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는 스토리집 선정 작가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스토리집은 지난 2022년부터 광주시, 문화체육관광부, GICON이 추진, 지원하고 있는 프로젝트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우리 아이들 안전한 환경서 바른길로 이끌어야"

광주경총 금요조찬포럼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공부하고,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죠."

지난 25일 광주경영자총협회(광주경총)이 주최한 '1666회 광주경총'에서는 박주정 전 광주시 서부교육청 교육장이 '사람됨이 먼저이고 교육만이 희망이다'를 주제로,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강연을 진행했다. 〈사진〉

이날 강연에는 136명의 지역 경영자들이 참석했으며, 박 전 교육장은 '30년간 위기의 707명의 아이들 곁을 지킨 선생 박주정에 대한 이야기'를 재치있게 풀어냈다. 본인의 교사 현직시절부터 교육장 재임 당시 경험을 토대로 다양한 사례를 들고, 지역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강의했다.

특히 '2430 부르미 시스템'을 소개하는 순서에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했던 학생을 찾아 장성 황룡강까지 찾아갔던 이야기 등을 사례로 들고, 교육 시스템을 통한 사고 당사자, 가족, 친구, 교직원 등 주변인에 대한 상담 및 치료 진행 등의 서비스를 소개했다.

또 현직 교사 시절 동거하며 바른 길로 이끌고자 노력했던 7명의 제자가 주변 환경에 따라 각기 다른 길을 걷게된 점을 들어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박주정 전 교육장은 "같은 환경의 학창시절을 보낸 아이들이 모두 다른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며 "교육에 따라 얼마든지 아이들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고 말했다.

/글·사진=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기업간 융합 성과물 공유…중소기업융합대전 성료

융합마스터 사례 발표 등 주목

중소기업융합 광주전남연합회가 주최한 '2024 중소기업융합대전'이 지난 26일 3일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폐막했다. 이번 대전에는 전국에서 1500여명의 중소기업 경영인이 참여해 320여개의 중소기업 전시부스를 운영했다.

다양한 포럼과 세미나가 진행되어 회원과 참관객들에게 호응을 받았고 특히 밀키트 포장 기술 확보를 위한 협업 모델 구축 사례가 소개되는 등 융합마스터 사례 발표는 주목을 받았다. 일자리 박람회, 수출 상담회를 통해 실질적인 비즈니스 매칭과 국제적 협력을 위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다.

부대행사로 지역체육대항전, 광주비엔날레 관람, 아듀 광주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과 기업, 분야와 분야 간에 융합을 경험하며 기업 간의 교류를 강화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중소기업들의 혁신과 협력을 격려하기 위해 개방형 혁신, 기술 융합, 협업 문화 확산 등 3개 분야에서 총 53점(정부 포상 15점 포함)의 포상도 이뤄지면서 성과를 이룬 중소기업인들의 공로를 격려하기도 했다.

광주시립국악현악단과 소리꾼 김산옥의 공연에 이어 환송사를 한 이정권 중소기업융합 광주전남연합회장은 "이번 융합대전을 통해 중소기업 간 협력이 더욱 활성화되고, 융합과 혁신이 한국 경제의 핵심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확신을 얻었다"며 참가한 모든 기업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폐막식에서 이 회장은 중소기업융합 대전세종충남연합회로 회기를 이양, 내년 중소기업융합대전 개최지를 대전으로 지정했다.

최봉규 중소기업융합중앙회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융합대전이 중소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로또복권

(제1143회)

당첨번호						2등 보너스숫자
10	16	17	27	28	36	6

등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일치	2,545,657,023	11
2	5개숫자 + 보너스숫자일치	51,855,977	90
3	5개 숫자일치	1,479,721	3,154
4	4개 숫자일치	50,000	156,400
5	3개 숫자일치	5,000	2,612,029